

학원강의 활용법

강사가 전하는 수험생활

이슬기 변리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56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슬기입니다. 아직도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얼떨떨합니다. 공부하기 싫거나 공부 계획 관련하여 고민스러울 때 합격 수기를 자주 찾아보곤 했는데, 이렇게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양한 합격 수기를 읽어보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듯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변리사 시험은 법학시험 특성상 다양한 공부방법이 존재하고,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의 합격 수기는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저의 공부방법이나 계획 중 여러분께 잘 맞는 공부방법이 있다면 적용 하시되, 잘 맞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공부 기간이 2차 시험공부 기간보다 길어서, 1차 시험 불합격으로 **부진정 동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이나, **2차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차 시험의 경우 일반적인 시기에 맞춰 공부한 것과 달라서 전반적인 공부방법 위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합격한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 1차 시험에서 민법 100점, 산업재산권법 90점, 자연과학개론 67.5점으로 평균 85.83점으로 합격했으며, 2차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 61.33점, 특허법 51.66점, 상표법 54.66점, 디자인보호법 59점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 1차시험

가. 1차 공부 시작에 앞서 준비할 것

1) 휴학을 할 것인가?

처음 1차 시험의 경우 겨우 기본강의만 다 듣고 시험을 볼 만큼 기웃거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합격을 예상했지만, 다음 1차 시험 때는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은 “1차도 이렇게 못 붙는데 2차를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불합격에 대비하여 2018년 2학기 무 휴학 1차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토익과 관련한 얘기에서 서술하겠지만, 앞서 1차 준비를 했었음에도 무휴학 1차 준비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휴학 없이 재학중에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학점을 조금 들고 시험과 관련한 과목 위주로 수강한다고 하더라도 2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토익에 관하여

저는 2019년 2월 1차 시험을 대비하면서, 775점 한번 넘겼었으니까 금방 넘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루다 2018년 9월이 지나고 나서야 영어시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토익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 불안했던 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영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처럼 하반기에 영어 성적을 준비하게 되면 1차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영어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시험 진입 전, 영어성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영어성적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일단 영어 성적이 나와야 1차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과감히 영어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성적을 먼저 만들어 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1월이 지나서부터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 4~5시간을 토익만 보기도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아, 1차 시험은 볼 수 있을지, 성적이 나오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니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1차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게까지 영어 성적이 준비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저의 경우를 보며 힘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전반적인 공부 방법

1) 기출표시의 효과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합격 수기에 기재된 다양한 공부 방법을 참고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현욱 변리사님의 합격 수기에서 기출표시에 관한 공부 방법을 보고 민법, 특허법, 상표법의 경우 교재에 몇 년도 기출인지 등 표시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표시할 교재는 시험 직전까지 회독 수를 올릴 교재를 정하고, 해당 교재에 표시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의 정석, 특허법은 도해특허법, 상표법의 경우 길상표법 입문 교재에 기출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표시하다 보면, 어떤 지문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또 해당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과정에서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게 되어 회독수를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문제는 항상 중요하고, 특히 객관식 시험인 1차 변리사 시험의 경우 10개년 정도의 기출지문은 그해 최신판례 지문이 아닌 이상 **3초 안에 O, X가 판별될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도 부분 기출문제 풀기 → 틀린 문제 복습 → 다음날 교재에 기출표시]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진도 부분의 기출문제를 다음날 다시 복습하는 것 대신에 기출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출문제를 표시하는 것은 효과는 좋으나 지문 하나하나를 찾아야 하는 과정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에 따라 5개년, 10개년 등 기출 년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객관식 풀이 방법

변리사 시험 대비에는 다양한 공부방법이 존재하고, 1차 시험에서는 크게 객관식 회독과 개념서 회독과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각각 방법에 따라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 모두 있으므로 그냥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식을 5회 이상씩 풀기보다는 개념서 위주로 공부했고, 객관식 문제는 과목별로 다르지만 2~3회 정도 풀었습니다. 이때 객관식 문제이지만 항상 모든 지문의 OX를 판별했습니다. ①첫 번째 풀 때 모든 지문의 OX를 맞췄다면 검정 동그라미 표시, ②두 번째 풀 때 맞췄다면 파란 동그라미 표시, ③세 번째 풀이할 때 비로소 모든 지문의 OX를 맞출 수 있었다면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각 단계가 지날 때마다 이전 색상의 동그라미 표시는 풀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빨간 동그라미와 그 문제에서 OX판별 시 끝까지 헛갈렸던 지문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상기 방법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이할 때 장점은 문제마다 언제 모든 지문의 O, X를 판별할 수 있었는지 표시되어 있으므로 시험 직전 복습할 때 시간적 여유에 따라 검정, 파랑, 빨강 표시에 차등을 두고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정말 헛갈린 지문들은 형광펜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였고, 시험 직전에 객관식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복습하였습니다.

3) 학원 모의고사와 관련한 생각

11월부터 많은 학원이 전 범위 모의고사를 시행합니다. 저는 모든 모의고사를 보았고, 각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그날 느낀 점을 모의고사 앞표지 또는 메모지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편인지, 그렇다면 그사이 어떤 것을 들고 보는 것이 가장 눈에 빨리 들어왔는지, 문제를 빨리 푸는 편인지(각 과목별 남은 시간), 렌즈 또는 안경의 착용 여부 등 기록해 두었고 이를 참고하여 2월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과 실제 시험 성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시험을 연습하는 용도로 모의고사를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1차 시험 불합격 후 2차시험 공부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차 시험의 불합격 이후 2차 시험 대비를 조금 했었습니다. 필수 과목 중에서 민사소송법과 특허법이 점수를 잘 주는 편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중심으로 2차 시험 대비를 했습니다. 1차 시험에 떨어진 직후 다시 1차 시험을 바로 공부하는 경우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시기에 2차 시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미리 2차를 공부한 것에 대해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리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2차 시험 대비를 시작하면, 기초 GS시간에 답안작성에 대해 꽤 자세하게 배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는 것인지, 무슨 내용을 쓰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동차 기간에 답안작성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한 상태로 대비하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차 불합격 후 하루 평균 공부량이 4시간 정도 될 정도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차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아예 놓고 놀아 버리기 쉬운데 매주 시험이 있는 GS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해당 범위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때 배운 내용이 생각보다 기억에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2차 시험장에서, 1차 시험 불합격 후 공부하는 동안 수강했던 GS 수업에서 나온 쟁점이 출제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내용이라도 기억나는 것과 안 나는 것은 시험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주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은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전력투구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 중 하나이므로 부진정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더라도 숲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취한 방법은, 숲은 볼 수 없더라도 일단 GS 출제 쟁점이라도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2차 시험 대비 시 한번 암기했던 쟁점은 보다 빠르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민사소송법의 경우 강의를 모두 듣고 복습까지 하려면 2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진정 동차가 아닌 이른 1차 시험 시작으로 민사소송법 강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이른 1차 시험 준비로 7~8월 이후에 2차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1차 시험의 합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반기 민사소송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민사소송법은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만으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특허법과 상표법의 판례를 꼼꼼히 보고 암기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가적으로, 1차 불합격 후 부진정 동차를 노리는 마음으로 2차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강의, 사례 강의뿐 아니라 쓰기까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1차 시험을 빨리 시작하여 중간에 민사소송법을 조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익숙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기본강의를 수강해보시는 것도 좋겠으나, 특허와 상표의 판례를 더 자세히 보고 답안지에 현출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다. 과목별 공부방법

1) 민법

민법의 경우, 기본서는 기본강의 때만 보고 이후로는 요약서를 반복적으로 회독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출문제 400제를 사서 모든 기출문제를 요약서에 표시했습니다. 또한, 요약서를 진도별로 복습하면서 민법 객관식 문제를 홀수 번만 골라서 풀었습니다.

이때 학교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1시간 동안 40문제를 풀고 채점 후 틀리거나 헛갈리는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혼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로 하다 보니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집보다는 전 범위 모의고사 문제와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복습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그 이후 객관식 문제집 자체를 많이 풀지는 못했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나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 객관식 문제나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풀이하고 공부하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문제가 날카로워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 없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올해 시험에서 헛갈리는 지문들이 있을 때 확실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1월쯤에는 **김동진 교수님 민법 전범위 모의고사 수업을 실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법 시험범위 전체 내용 40문제를 쉬지 않고 풀이하고 이후 설명을 듣는 수업으로, 다른 날에는 진도별로 민법을 보다가도 이날과 이 수업을 복습하는 동안에는 전범위를 공부하였습니다. 덕분에, 진도별로 민법을 보다가도 민법 전체 내용을 복습함으로써 민법 전체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동진 교수님 최신판례 강의**를 들음으로 민법 강의를 마무리했고, 시험 직전에는 요약서 보다는 표시해둔 헛갈렸던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복습했습니다.

2월부터는 시간을 재고 민법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시험시간에 맞춰 풀었는데 민법 전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진도별로 풀때와는 다르게 시간 조절을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기출문제를 푸실 때, 진도별로 풀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회차별 풀이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산업재산권법(특(16), 상(10), 디(10))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조문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문 강의를 들으며 조문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조문을 이해하며 공부하다 보니 후에 완벽히 암기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어도 추론을 통해 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중요도를 나눠서 조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중요 조문들은 판례 및 사례 등등으로 자주 나오는데 비하여, 조문 그대로를 가지고 묻는 지문들은 오히려 대부분 소위 짱돌 조문들이기 때문에, 조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모든 조문을 눈도장 찍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허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공부했고, 조문 정리 책에 나눠진 파트별로 조문을 복습하고, 해당 범위의 판례를 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문제풀이는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고,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시간 재고 풀이하는 식으로 번갈아가며 전 범위 문제와 진도별 문제를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객관식 문제 중 마지막까지 헛갈린 지문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조문과 판례를 복습 후 빠르게 해당 지문을 눈도장 찍으며 복습했습니다.

상표법은 특히나 조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3조, 34조, 90조, 119조 등의 조문은 아예 암기까지 되어 있어야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루지 마시고 해당 조문은 암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9년 1차를 대비하면서 상표법은 시간이 부족하여 객관식 문제를 모두 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기출문제를 헛갈리거나 모르는 지문에 없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객관식 지문용 문구만 보았을 때 이해 안 되는 판례들은 2차용 판례집에서 찾아 공부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함께 자세한 판례 내용을 보다 보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고 문장 자체로 어떤 판례인지 기억(예: 뉴발란스 판례) 하고 넘길 수 있으니 복습시간도 줄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2019년 1월 1일 심사기준 개정으로, 최종정리강의를 두 번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이 덕에 마지막까지 머리에 많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법 과목들은 모두 기출문제를 요약서나 기본서에 표시했었는데,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기출문제를 표시하는 대신 기출문제 자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따로 풀지 않고, 기출문제와 보충자료집을 반복해서 보고 부족한 내용은 최종정리 자료에서 보충함으로써 공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과목 공부와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느정도 개념 이해가 끝나고 반복하며 회독수를 늘리는 시기가 오면, 진도별로 공부하는 것과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처럼 객관식 문제를 진도별로 풀이하면서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풀이하며 병행해서도 좋고, 기본서 회독을 진도별로 보면서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며 병행해서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결국 내용이 최대한 휘발되지 않도록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 진행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자연과학 (물(7) 화(7) 생(5) 지(8))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제일 어려운 과목은 자연과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물리1, 물리2만 공부했던 터라 나머지 과목에 대해 전혀 기억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1차 시험 불합격의 요인이 자연 과학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자연과학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법과목 위주로 1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데, 기존에 자연과학 베이스가 부족한 분들은 결국 모든 1차 시험 문제가 동일한 배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자연과학 대비도 꼼꼼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하던 과목이라, 복습 없이 기본강의를 빠르게 수강할 수 있었고 그 이후 기본서에 함께 있는 문제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본 문제도 중요하지만 특히 물리 화학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며 문제풀이를 한 후에는 분량을 나눠서 하루에 모든 단원의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문제 수를 세고 나눠서 풀었는데, 전체 범위의 공식 등의 내용을 계속 상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종이에 필요한 공식만 간략하게 보기 쉽게 3~4장으로 정리하여 문제 풀다가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참고하면서 암기하려 했고, 시험 전날은 공식만 확인했습니다.

화학은 특히나 자신이 없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1차 준비를 하면서 기본강의를 다시 들을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객관식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그것이 도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리 화학은 기본 개념을 다 안다고 해도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를 풀 때마다 막히더라도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화학 객관식은 처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하고, 그 다음에는 물리 문제풀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 수를 모두 세어 분량별로 나누어 하루에 전 범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풀면서도 잘 모르겠는 문제들과 모의고사 틀린 문제들은 모두 오답 노트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시험 전에 반복해서 보진 못했으나 오답 노트로 정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풀이과정을 꼼꼼히 복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유기화학 파트를 완전히 버리고 갔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 공부하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2019년 1차 시험에는 유기화학 분야에서 4문제나 나오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못해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풀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은 챙기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풀이가 오래 걸리고 계속 막힌다면, 객관식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기본강의를 듣고 난 후, 객관식 강의를 통해 강사님이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보면 해설로 풀이 방법을 익힐 때와 비교하여 더욱 풀이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생물은 저를 제일 괴롭혔던 과목입니다. 이번 1차 시험 전에는 패기롭게 한번으로 찍어 넘겼던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생물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기초가 아예 없는 상태였고, 그리하여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한 과목입니다. 생물의 경우, 컴팩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투자한 시간 대비 고득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번으로 찍으시는 것은 절대 비추천합니다. 3문제 차이는 평점이 2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한번으로 찍지 마시고 저처럼 끝까지 매달려 5개라도 잡으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생물의 경우 암기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전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풀이 방식과 문제에 나온 지문 자체를 암기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생물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은 기본강의,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했고, 기본서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따로 객관식 풀이는 하지 않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풀었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다른 과목과 달리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풀고 기본서에 세세한 부분도 체크해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구과학은 모두가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인 만큼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구성구석 챙겨봤습니다.

라. 시험직전 공부계획

시험 직전 2월부터 시험시간표에 맞춰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장과 비슷한 분위기의 학습실에서 시험시간에 맞춰서 공부했고, 이때 시험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의 기출문제도 회차별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OMR 카드 마킹하는 것도 산인공의 OMR 카드 지를 준비 해놓고 똑같이 연습했습니다. 특히 저는 자연과학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고 늘 불안했기 때문에, 2월에 시험장에서는 점심 후 자연과학 시험을 보는 것을 고려하여, 점심을 먹으면서 자연과학 보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1시간 동안 자연과학 40문제를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실제 자연과학 시험 시간에 맞춰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과학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연과학이 반쳐 주지 않으면 법 과목만으로 합격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하루에 전과목을 모두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시험시간에 맞춰 문제풀이를 한 뒤에는 민법3 / 특1.5 상1 디1 / 물1 화1 생1 지1 비율로 진행했습니다.

3. 2차시험

가. 서설

처음 1차 채점 후, 2차 시험 끝까지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곧 '7월까지 포기하지 말고 버티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민사소송법이라는 벽이 너무 높아 보였고, 절대로 동차로 합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동차는 자기가 합격할 줄 모르고 합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미리 2차 공부를 했었음에도 '그 합격할 줄 모르고 합격한 동차는 지금 나랑 다르다.' 생각했었는데,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틴다는 마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와 달리 2차 공부 기간은 짧으니,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한 방법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과목별 공부방법

1) 민사소송법(3월 기본강의/ 4월 실전GS/ 5월 기초GS/ 6월 실전GS 수강)

2월 1차 시험 채점 후, 3~4일 정도 휴식하고 기본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에 들었던 강의를 인터넷강의로 신청하여 빨리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1차 시험 후 살짝 늘어져 빠르게 기본강의를 수강하진 못했지만,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을 통해 민사소송법의 전체 흐름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강의 책의 경우, 신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요약한 책으로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있고, 학설 판례 검토가 잘 정리되어 있어, 신민사소송법 강의책을 중심으로 복습했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교과서 의의를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GS 수업을 들으면서 교과서 의의대로 의의를 작성하면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른 강사님 모범답안에는 의의가 더 짧게 적힌 경우가 많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이후 변리사 채점도 하셨던 학교 교수님들께 여쭙보니, "의의는 당연히 교과서 의의대로 쓰는 것이고, 의의가 당연히 3줄 이상 나오지 1줄 나오느냐"고 답변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여유가 된다면 의의는 길더라도 교과서 의의대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월에는 암기량을 늘리고 싶어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논점을 미리 알려주셨고, 해당 논점을 최대한 암기해 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논점을 미리 알려주셔도 실전 GS는 일주일당 8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할 양이 너무 많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주신 논점에 대해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기본강의 수강 후 복습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실전 GS를 듣다 보니 해당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경험할 수 있었고, 암기할 내용과 이해할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다시 **이창한 교수 민사소송법 기초 GS**를 수강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다른 GS수업과는 달리, 미리 그날 문제 범위 및 일정 범위의 수업을 먼저하고, 후에 1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풀이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쓰기 스티디를 주4회 진행했고, 하루 2문제씩 작성하여 한 달에 실전 GS를 한 개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에 실전 GS를 대비하여 제가 듣는 강사님의 실전 GS A형 문제를 미리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쓰기, 암기가 많이 부족하던 때라 미리 문제를 보고 목차를 잡아본 후, 해당 논점의 내용을 쓰기 전날까지 최대한 암기해 다음 날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이창한 교수 민사소송법 실전 GS**를 들었습니다. 각 강사님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5, 6월 GS의 내용을 민사소송법 강의책에 단권화 하여 옮겼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작성해야 할지 정리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차 기간에는 아무래도 모든 내용을 잘 쓰기 어려우므로 나올 수 있는 에이급 쟁점에 대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점수가 계속 나오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너무 슬퍼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 해당 수업에서 단 한 번도 50점을 넘기지 못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61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습득한다는 마음으로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태껏 수업 들었던 GS를 복습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112문제나 되기 때문에, 'GS 출제된 문제가 나오면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암기해나갔습니다. 이때 답안지 자체를 가지고 암기하기보다는, 해당 문제의 답안에 작성된 부분의 민사소송법강의 교재를 가지고 암기했습니다. 교재에 GS 출제 표시를 모두 해놓았기 때문에 회독 수를 늘리며 해당 부분을 찾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 쓰기를 하지 않으면 감을 잃을 것 같아 불안하여 복습해야 하는 문제 중 한두 문제는 직접 쓰며 복습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 민사소송법의 경우 내용이 많으므로 작은 수첩 크기에 학판점이 정리된 것을 이동시간 꾸준히 보며 암기하려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서 남들이 모르는 쟁돌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보다도 남들이 잘 아는 문제를 정확히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논거와 판례문구를 통해 이는 문제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논점을 누락하거나 잘못 쓴 부분도 꽤 있었지만, 논점을 제대로 파악한 문제에서는 풍부한 논거와 정확한 의의를 포함하여 작성하려고 계획한 답안 그대로 작성하였고, 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특허법(4월 실전gs / 6월 실전gs 수강)

4월에는 1차 기간, 2차 공부를 미리 했던 것을 바탕으로 기초 GS가 아닌 실전 GS를 바로 수강했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암기내용이 부족하므로 우선 쟁점 암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때, 효율을 높이기 위해, 들으려는 실전 GS 수업을 들었던 지인에게 부탁해 논점을 받았습니. 이때 문제의 논점파악 연습도 더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하여 최대한 큰 범위에서 출제범위를 받았고, 덕분에 i) 암기해서 작성하기와 ii) 논점 추출하기 모두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논점을 받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는데, 저처럼 주변에 도와줄 지인이 있다면 큰 출제 범위에 대해 알고 암기해가는 것은 양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어 추천해 드립니다. 4월에는 위의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암기량을 늘리고 문제풀이를 연습했습니다.

6월에는 서&장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두 번리사님 GS는 문제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다양한 문제스타일을 모두 연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GS 풀었던 것의 목차를 잡아보는 식으로 복습했고, 7월에 특허법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때 쟁점이 될 수 있는 판례 사안에 대해 답안지 목차와 판례 문구를 정리해서 잡아주셨는데 해당 판례에 대해 어떤 내용을 함께 작성해야 좋을지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음특허법 교재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GS에 출제된 내용에 표시하여 해당 내용 위주로 계속해서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GS에 출제된 문제를 교재에 체크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부분만 보게 되어 다른 부분문제 출제 시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GS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도 눈도장을 찍어두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르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리걸 마인드를 이용하여 최대한 논리적인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상표법(2월 기본강의/ 3월 기초gs / 5월 실전gs 수강)

2차 대비 공부를 해본 적 없는 유일한 필수과목이기도 하고, 답안작성방법이 어려워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후 성적을 보면 상표법의 경우 미리 준비하지 못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가 나와 동차 분들께서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표법은 1차 시험 후, cjh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먼저 수강했습니다. 이 시기에, 판례를 꼼꼼히 볼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판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사안을 자세히 알고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안분량으로 키워드를 뽑아 판례문구를 정확히 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많은 동차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판례의 쟁점 및 사안을 알고 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판례 문구를 판결 요지 그대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판례를 깊이 이해하고 쟁점을 암기함으로써 판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고 정리된 문구로 작성하는 것이 물론 최고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사안들을 기억해내며 사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 경우 이런 식으로 판시했다.' 고 정리하여 판례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 공부 방법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와 판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을 간단하게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해당 판례 내용 앞에 붙여놓고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스토리 형식으로 판례를 기억하다 보면 좀 더 잘 외워지는 장점이 있고, 문제를 풀 때에도 해당 문제가 어떤 판례에 기반하여 출제된 것인지, 또한 사실관계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판단하여 비교적 쉽게 논점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상표법 기초 GS를 수강했고, 강사님께서 논점을 넓게 미리 잡아주시는 덕분에 암기와 동시에 논점추출 연습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답안지 스타일이 많은 분이 달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처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장 체계 잘 맞는 강사님의 답안스타일에 최대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저의 스타일은 조금씩 곁들였습니다. 저는 목차마다 짧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특허법, 민사소송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였고, 다만, 시간 내에 적절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중요한 논점은 평소처럼 작성하되, 덜 중요해 보이는 논점은 짧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논점, 부논점을 파악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어려워서 cjh 변리사님께 자주 질문 드리며 틀을 잡아나갔습니.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절대 책을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차 기간에는 많은 분이 책을 참고하여 답안을 작성하곤 하는데, 이렇게 한번 습관이 들면 계속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됩니다. 책을 참고하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암기량이 부족하여 당장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도 이 시기 암기를 통해 실전 GS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책을 참고하기 보다는 최대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4월에는 5월에 실전 GS를 수강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쓰기 스티디에서 주 4회 1시간 2문제씩 GS 한 세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기간에 원래 목표는 GS 논점을 미리 암기 및 공부하여 쓰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과목 공부에 밀려 목표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초 GS 때 암기했던 내용과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답은 작성해본다는 느낌으로 i) 문제를 먼저 보고 목차를 잡아보고, ii) 답안을 읽어보며 목차를 잘 잡았는지 논점 추출은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쓰기 스티디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과목 공부에 상표법을 많이 복습하지 못하여 5월에 실전 GS를 수강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전에 암기한 내용과 새로 연습하는 내용을 통해 답안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초 GS 및 이후 답안쓰기를 해보며 조금씩 암기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초GS 수업 등에서 최대한 암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 이후로는, cjh 변리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했고 해당 수업에서의 자료가 요약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그 자료를 우선으로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마음가짐은 ‘이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두문자를 암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답안지에 드러나야 하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판례의 사안과 법리에 대한 이해를 미리 준비했었기 때문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암기된 두문자를 나열하는 식의 판례 서술보다는, 판례 사안과 더불어 키워드 위주로 판례를 서술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답안형식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단순 암기된 것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맞는 판례를 생각하고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다 논점 문제와 단문 문제들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저는 다 논점 문제의 경우, 예를 들어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33조와 34조 각 호를 처음부터 쭉 체크하는 식으로 논점을 추출하고, 핵심이 되는 논점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답안을 작성하되, 부논점의 경우 목차를 최대한 깔끔하게 잡아 모아서 서술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단문을 암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GS에서 출제되었던 단문은 체크해두고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 목차를 암기하려 했습니다.

4) 디자인 보호법(3월 디자인통합강의 / 5월 실전gs / 6월 실전gs 수강)

저는 공학과목보다는 법 과목에 자신이 있기도 했고, 전공내용을 오랫동안 보지 않아 다시 시작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동차니까 디자인보호법이다” 하는 마음보다는 강사님들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신중히 고민하여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구조로 합격하신 장현욱 변리사님께 자문했고, 3년 이상 데이터구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단문 암기의 밑바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3월부터 디자인보호법 스터디를 했습니다. 두 명이 함께 처음에는 각자 에이급을 2개씩 외우고, 다음날 만나 각 단문을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회독할 때는 에이급 3개, 세 번째에는 에이급 2개 비급1개 이런 식으로 양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빠지는 부분도 많고 부족했지만 점점 더 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원과 서로 다른 책을 봤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서로 보충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 스터디 준비가 힘들었으나, 세 번째 복습이 되는 시기쯤에는 한번 해당 범위 목차를 읽어봐도 내용이 떠올라 금방 준비할 수 있었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디자인 보호법 공부시간을 줄여도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6월 실전 GS를 수강하는 기간 동안 GS 대비 공부는 시험 범위 목차를 읽어보고 암기했던 내용을 상기시키고 떠오르지 않는 부분만 다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대비했습니다. 스터디에서 책을 통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문 논점 암기에만 치중된 공부를 해서, 판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7월에는 판례강의를 수강하며 판례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판례에서 문제가 된 디자인이나 심사기준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림에도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아쉽게도 2019년 2차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판례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나, 꾸준히 공부해둔 덕분에 마지막 본 내용이 아니더라도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분들의 경우 첫3, 4월에 선택과목을 매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시겠지만 3법 성적이 잘 나와도 선택과목을 pass 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으므로 6월이 되면 선택과목을 pass 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리다 보면 마지막에 필수과목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선택과목을 안정게도에 올려놓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 답안지 작성 및 암기 방법

답안을 작성할 때 항상 신경을 썼던 부분은, **논리적인 답안 흐름과 사안 포섭**이었습니다. 시험 답안지도 결국 내 생각을 교수님들께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답안을 작성하면서 목차를 잡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차를 따로 잡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읽으면서 답안을 작성하기 전 어떤 흐름으로 작성할지 생각하고 간단히 표시해놓는 방법으로 목차를 잡았습니다. 즉,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지에 간단히 목차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안 포섭입니다. 단문 문제와 달리 사례형 문제의 경우 가장 많은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안 포섭 부분입니다. 아무리 앞서 암기된 내용을 잘 작성하더라도 사안 포섭을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물어본 것에 대답을 잘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기한 내용이 많이 떠오를수록 암기한 내용을 작성하려다 보니 사안 포섭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따라서 의식적으로 문제를 읽으면서 사안 포섭을 할 때 사용할 키워드를 문제에 체크했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미리 사안 포섭에 이용할 키워드에 체크해 둬으로써, 문제에서 사용된 사실 관계를 더욱 드러내며 앞서 작성한 논거들을 이용하여 풍부한 사안 포섭이 담긴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남은 문제를 이용하여 사안 포섭을 하는 것과 이용할 키워드를 체크해놓고 사안 포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으면서 사안 포섭도 생각하며 키워드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앞서 작성된 논거들, 예를 들어 판례 키워드들이 있다면 사안 포섭 부분에서 미리 체크해둔 사실 관계 키워드와 이에 대응되는 논거 키워드를 매칭하여 사안을 포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5월에 kib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했고, 이 시기에 변리사님께서 수업 종료 후 많은 분의 답안지를 검토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매주 다양한 과목에 답안지를 첨삭 받았는데, 어떤 문제에서 약한지 글씨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과 관련하여 암기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암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던 사람 중 하나였고, 특히 어디서부터 얼마나 암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각 과목에서 의의는 정확히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암기를 돕기 위해 각 교재에 의의는 보라색, 학설의 논거는 파란색, 판례는 주황색, 검토를 초록색 등 색 구분하여 암기할 키워드 부분에 표시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했으나 눈에 익고 손에 익다 보니 책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고 키워드를 암기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책을 보고 암기하는 것보다 수업을 듣거나 말하면서 암기할 때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 GS 문제를 혼자 풀기보다는 가능한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암기할 때도 혼자 말하면서 또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 또는 스터디를 통해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각자 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잘 맞는 암기 방법을 찾으시고, 이를 통해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 GS수강과 교재정리 방법

GS를 수강한 후, 많은 양의 문제를 정리하고 여러 번 다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재에 모두 정리해놓고 암기했었는데, 스티커를 이용해 gs기출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동그라미 스티커는 cjh 변리사님 기초, 빨간색 스티커는 실전 이런 식으로 색으로 각 GS를 구분하고 그 스티커 위에 회자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어떤 GS에서 언제 해당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는 GS에 출제된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다 보면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내용 위주로 교재를 보면 답안지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암기할 수 있어, 다른 문제가 나와도 암기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생활 스케줄

가. 1차 스케줄

8시 30분: 학교 고시반 등교

8시 30분 ~ 12시 30분 / 1시 30분~6시 / 7시 ~ 11시30분(오후) : 공부 시간

12시 30분 ~ 1시 30분 / 6시 ~ 7시 : 식사 시간

1차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등교하여 11시 30분 정도까지 공부했고, 점심은 12시 30분쯤 저녁은 6시쯤 1시간 정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려서 나가서 먹으면 2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도시락이나 간단한 음식을 사서 고시반 휴게실에서 먹으려 했고, 학식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너무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면 나가서 먹기도 했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토익이나, 학교 수업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어 10시간에서 많을 땐 12시간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온전히 일주일 하루를 통째로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조금 더 늦잠을 자거나 야식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나. 2차 스케줄

8시 30분 ~ 11시: 스터디 (주 4회) / 나머지 날은 9시쯤부터 공부 시작.

12시 30분~6시 / 7시~11시 30분(오후) / 새벽 1시~2시 /

11시30분 ~ 12시 30분 / 6시~7시: 식사

2차 기간 동안에는 처음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초반에는 일주일 하루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하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늦잠을 자기도 하고, 데이트하며 휴식을 보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 월요일도 온종일 쉬기보다는 만나질 정도 휴식하고, 다시 수업 들은 것을 복습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8시 30분~11시 정도까지 스터디를 주 4회 진행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시간정도는 디보 암기 말하기 스터디를 하고, 1시간~1시간 20분은 2문제씩 실전 GS 문제풀이를 했으며, 이후에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은 짧게 가졌습니다. 6월까지 거의 매일매일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 고시반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공부하다가 점심을 먹었으며 1시간정도 식사시간을 가진 후, 6시까지 공부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때도, 밤 11시30분~12시 정도까지 공부했고 학교에서 스터디 준비를 다 못할 때는 집에 와서 새벽 1~2시까지 스터디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6월 말이 되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졌는데, 학교 고시반이 너무 더워서 집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한 달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 근처 독서실로 옮겨 공부했고, 7월에는 아침 10시 정도까지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11시까지 공부한 후 점점 더 일찍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험 2주 정도 전부터는 6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10시쯤에 귀가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장소를 옮기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해서 힘들지만, 더위 등과 같은 환경의 문제는 공부하는 중에 계속 신경 쓰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왕 옮기실 것이라면 빠르게 결단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 글을 마치며 드리는 말씀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자존감 자신감 모두 떨어졌었고, 합격 발표를 확인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행운과 응원을 통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만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도합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글로 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고민이나 상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는 dewgi56@gmail.com 입니다.